

■ **기독교윤리** ■

한국 초대교회 부흥회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

1. 들어가는 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에서 현대 사회의 인간에게 과연 도덕의 실천과 그것을 전제로 하는 합리적 이성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니버가 제시하는 두 가지 형태의 도덕 중 하나는 이타성에 근거한 개인의 내면 도덕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와 사회적 통찰력에 입각한 사회적 도덕이다. 역사적으로 내면적 도덕은 기독교 최고의 덕목인 사랑과 같은 가치관을 중시하여 그 이상을 실현하려는 인간 정신의 요구에 충실한 이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도덕은 사회 속에서 집단의 가혹한 이기심에 의해서 좌절되고 만다. 개인의 이상적인 도덕이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쉽게 변질되는 이유는 현대 사회의 기술만능주의와 상업화, 그리고 도시화, 인류전체를 상호 의존적인 경제 체제 속에 묶어 버리는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돈의

원리를 극복할 정신이 필요하지만 인간집단이 완전한 정의를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은 환상(illusion)이라고 니버는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광기(madness)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숭고한 광기(sublime madness)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 영혼을 부추켜서 보다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희망마저 포기할 수 없다는 역설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바로 니버가 말한 숭고한 광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나친 주장일까? 우리의 현 실제 모습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기독교적인 영성을 통하여 자신과 이 사회,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필자는 본 글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 사회와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단지 왜곡된 우리의 모습을 들추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 가는 기독교의 실상에 대한 바른 해석과 함께 바른 역사 의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이다. 둘째로, 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한국 개신교 초기 특히 1903년과 1907년의 부흥회 운동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인 고찰과 함께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었던 해방적인 영성의 윤리적인 구조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보고 이 영성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 세계와 연관이 되어야 할 지에 대하여 강조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천 년을 준비하는 교회의 의식과 영적인 삶이 지향하여야 할 목적은 무엇인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2. 한국교회와 영성적 분별력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 사회인가? 우리 사회에는 왜 그렇게 많은 주의(-ism)들로 인한 갈등과 편견이 넘쳐 나는가? 그 예로서 민족

주의란 본래 사회적 삶의 기본 단위로 자신이 속하여 있는 민족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정치 이념이나 사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역사 과정에서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한국 인종만이 우수하다고 하는 불평등과 편견의 체계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체계는 서열지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 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다시 사회의 믿음체계에 영향을 주어 우수(優秀)한 인종이 열등(劣等)한 인종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인종주의를 배태하고 있다. 그 뿐인가? 정치에서는 정책대결과 이념 경쟁이 아닌 지역연고에 기인한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을 연고로 해서 그 지역의 우월성이나 지역 콤플렉스를 통하여 타 집단과 이질화시키고 국민들을 우열과 열등으로 서열화 하여 소인배적 당리와 당략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지역주의 행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 내 이러한 지역 감정은 타 지역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속성을 계속 유발시켜 심지어 집단적인 적대감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편견과 갈등은 자연스럽게 왜곡된 자기 차별화, 또는 특수주의를 고착화시키고 사회에서는 상하관계나 성(性), 기능적인 능력 차순으로 인간을 판단하게 하는 비도덕과 무규범의 사회적 구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도덕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근대성, 혹은 진보의 결과, 즉 인간이 봉건의 속박과 종교적 세계관, 가족과 공동체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개인-불안하고 소외된 개인-으로 존재하게 되는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정치 경제적 조건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도덕성을 이야기 할 때 한국인의 윤리의식은 인간성 상실,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허례허식, 공공윤리의식 결여, 사회정의의 부재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파생된 윤리문제와 별개로 한국의 유교문화의 변형으로 물질만능주의, 법의식이나 규범의 결여, 공공성의 부재, 정의의 부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한국 사회의 문제 이면에는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종교집단, 특히 기독교의 경우도 도덕을 정치적인 지평에 올려놓지 못하고 개인의 사

고와 행동의 문제, 나아가 사회 전반의 정신과 문화의 문제에서 개인적 도덕성이 사회의 부도덕성 앞에 무기력하다는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주장을 되새기게 된다.

한편, 소비주의의 승리로 귀결되는 현 자본주의 체제 내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은 돈과 자본에게 그 주체의 자리를 빼앗긴 노예로서의 인간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는 자본주의적 국가체계가 시장을 독점한 것이 원인이지만 결과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돈과 인간의 관계, 즉 물신숭배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 주객의 사유적 이원론이 돈과 인간이라는 물질적 이원론을 통하여 주체는 돈을 가진 자가 되고 돈을 소유할 권력과 지식을 가진 상부로 모든 것이 통합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물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람시(Gramsci)는 국가의 도덕적-윤리적 기반이 약하고 지배 집단의 체계도 니적 능력(hegemonic capacity)이 취약할수록 국가는 억압적인 기구를 확대하게 되며 물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지배질서를 유지하려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바로 한국 근대사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국가사회에서 국가의 우월성과 지배계급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경제성장이다. 따라서 한국 근대 사회는 정치와 돈의 논리가 법과 도덕의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한 안보의 논리는 국가와 시장을 매개하는 사회의 도덕적인 공간을 더욱 더 압박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위 민법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될 수 있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 언제나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집행된다. 이러한 도덕성의 중심은 희생이나 자기 부정이 아닌 시장의 원활한 작동이 곧 사회에 대한 이익이며 도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도덕인 공정한 교환의 원리가 국가 주도형이 되는 후발 자본주의의 경우, 국가가 자원의 최종 분배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민법의 규

범이 위반되는 경향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질서에서 도덕성이란 바로 정당하게 획득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노동 시장에서의 정당한 교환이나 증여 등을 통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윤추구는 규범의 영역 밖에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가 한국 시장과 개인, 나아가 국가 전체에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는 그 동안 복음주의를 표방한 일관된 성장주의로 교회의 외적 팽창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성장주의 이면에는 극복하여야 할 난제들이 있다. 기복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반 지성주의, 배타주의, 집단이기주의, 교회의 공적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분리는 세상 안에서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케 했다. 도덕과 신앙의 이원화는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지만 교회가 감당하여야 할 공적인 영역을 소외시킴으로써 비정치 사회적인 개인적 경건주의가 마치 한국교회의 지상주의 원칙이 되다시피 하였다. 초기 기독교가 한국의 유교를 평가 절하하고 기독교의 단순화된 원리를 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생략의 죄를 범함으로써 유교를 넘어서는 성숙한 윤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겹테기는 기독교적인 옷을 입고 속은 전 근대적인 유교윤리로 채워 결국 윤리적인 퇴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른 성차별, 권위주의적인 교회 구조, 율법주의적 걸치레 신앙, 자유와 책임적인 윤리대신 서열화를 조장하고 가부장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왜곡된 충효의 비합리성의 윤리가 한국 교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맘몬(mammon)이란 부(富)를 상징하는 맘모니즘(황금우상숭배주의)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물질을 절대시하는 태도나 행위가 한국교회에 만연하여 있는 것이다. 그 현상으로서 신앙을 물량주의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윤리가 생략된 기복적 태도, 교회의 상업주의와 성직 매매 등이 그 예로 나타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와 갱신에 대한 영적 가치를 재 발견해내야 한다. 한국 교회

는 거듭나야 하고, 한국 교인들은 자성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비대해지면서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물질주의, 물량주의 가치관에 물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교인들은 겸손히 섬기고 가진 것(물질, 시간, 인력)을 나누어주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 감화를 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브라질 신학자 리바니오(J. B. Libanio)는 『정치와 영성의 해방』(*Spiritual Discernment and Politics*)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과 윤리가 현대 정치 사회의 구조 속에서 그 역할에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인간의 해방은 궁극적으로 정치 현실에 분명한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와 신앙은 진리의 통일(unification of the truth)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영역에 속한다고 할 때 제기되는 질문은 신앙이 근거하고 있는 성서적인 영감과 정치가 의지하는 현실적인 수단들 사이에 과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다. 리바니오는 이와 같은 분별력을 영성적 분별력(spiritual discernment)라고 지칭하며 관념론으로 포장된 이데올로기에 현신하는 사회적인 입장을 포기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 세상 속에서 진리와 보편적인 사랑을 획득하고 인간의 유한성을 변증법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강조한다.

리바니오는 영성적 분별력에 있어 정화(purification)를 선행조건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영성적 분별력은 개인의 차원에 속하고 정치는 집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입장이 이분법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한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리바니오가 주장하는 진정한 영성의 해방이다. 왜냐하면 영성적 분별력이 하나님의 뜻을 사회에 안에서 발견하는 경건한 실천이라고 할 때 정치는 결국 정의의 실현을 위한 특별한 영역이 되고 영성적 분별력이 그 기능을 발휘하여야 될 특수한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성적 분별력이 필요로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이 정치적인 존재

이기 때문이다. 즉 정치와 권력이 서로 결탁하게 될 때 거만한 지배욕과 압제라는 간악한 탐욕이 인간을 사로잡기 때문에 정치적 경험 속에서 필연적으로 분별력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별력은 단순히 새로운 현실 속에서 적절한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변혁이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면제가 아니라 정치 분야에 대한 비판적 감시를 통하여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나아가 역사에 적용시켜 그 역사를 변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와 개인이 영성적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금욕적인 실천을 통하여 이룩한 영성에 대한 너무 과도한 애착과 개인의 영적 차원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회 현실에 대한 무지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때, 우선 해결하여야 될 과제는 개인의 의식이 사회적 영역과 연관을 맺는 변증법적 이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영성적 분별력이 단순한 교리나 개인의 영적 수련에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에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국 개신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영적 각성으로서의 부흥회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3. 한국 초대교회 부흥회의 역사적 고찰

한국의 토양 속에 서구의 기독교가 삶을 움직이는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개인적인 체험들도 있지만 집단적인 체험을 가져오게 한 한국교회의 부흥회라고 생각한다. 기독교가 한국인들에게는 이질적인 것으로서 배척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부흥회를 통한 성령운동은 나름대로 역기능과 함께 순기능도 나타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빛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영성의 회복이라는 각도에서

찾으려 하는 움직임들이 강하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흥회의 초기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영성 회복의 길을 더듬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성 회복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영성 이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한국교회 부흥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교회 내의 문제가 단순히 표출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그렇듯이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오랜 세월을 두고 자라다가 나타나는 것이기에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에는 세 차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 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이 그것들이다. 이 운동들은 한국 교회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사를 특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의 크고 작은 영적 각성 움직임들은 연합되어 거대한 성령운동이 되었다.

3-1. 영적 대 각성 운동으로서의 부흥회

원산과 평양에서의 부흥 운동은 죄의 고백과 죄 용서 체험을 그 내용으로 하는 영적 각성운동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한편, 위상승배에서의 해방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백만인 구령운동은 한일 합방이라는 위기 속에서 민족복음화라는 꿈을 심어주었으며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한국 교회가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부흥회에 대한 언급은 1903년의 원산 부흥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산 부흥운동은 1903년 8월 원산에서 개최된 여 선교사들의 기도와 성경공부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남감리회 선교사 하디(R.A. Hardie)가 그 모임을 인도하였는데, 그 모임에서 하디와 여 선교사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것이 원산 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이때 하디 선교사는 회개의 체험에 이르게 되었으며 한국에 파송된 서양 선교사

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민족적 우월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과 학력과 실력을 의지하는 자만감, 한국인을 미개한 민족과 무식한 백성으로 생각하는 깊은 자만심을 토로한 것이다. 하디의 고백은 모인 이들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회개를 통하여 드러난 죄의 문제는 모인 선교사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그의 자신을 재 각성하는 영적인 경험은 곧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발흥한 부흥운동은 강력한 죄의 회개로 특징지어졌다.

1904년 1월말에 열린 정기 개성지방 사경회를 하디와 선교사들이 인도하였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회개와 중생의 체험을 하였다. 원산에서 시작된 집단적 부흥운동이 다른 지역에 있는 남감리회 선교구역으로 퍼져나갔다. 이후에도 하디는 1904년 9월 서울 정동교회에서의 부흥회를 비롯하여 10월에 평양지방과 11월에 인천 제물포 교회에 까지 부흥회를 인도함으로써 미감리회 선교구역까지 교회부흥운동을 확산시켰다. 하디가 1904년 11월에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떠난 후 1905년 일년 동안에도 부흥운동은 지역 선교사들과 한국인 전도인과 전도부인들의 주도하에 이어졌다. 하디 중심으로 전개되던 부흥운동이 이제는 선교사들과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과 전도부인을 비롯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동참하는 하나의 각성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구정 사경회는 영적 각성운동을 저변 확대시키는 중요한 채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905년에 접어들면서 이 영적 각성은 여성들과 학생들 사이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한국인들 사이에 죄에 대한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주었다. 1905년 9월에 미국 남.북 감리회와 미국 남.북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오스트레일리아 장로회 선교부등으로 구성된 한국복음주의 연합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가 생겨난 이후 선교사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한국교회의 연합기도회와 연합 사경회 모임들이 매우 활발하게 확산되

어 열렸다. 1906년 이후부터는 부흥운동이 선교사들보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한국인 교회지도자들에 의해서 더욱 능력 있게 인도되었다.

1907년의 부흥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평양을 비롯하여 서울, 인천, 공주, 영변, 해주 등 미감리회 선교구역에서 활발하였는데, 평양 부흥운동에 참여하여 은혜를 체험한 교인 혹은 평양교회에서 파송한 전도인에 의해 부흥운동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평양 부흥운동의 특징인 통성기도와 중보기도, 그리고 죄에 대한 보상 행위가 보편적인 신앙 양태로 자리 잡았다. 확실히 평양 부흥회는 그곳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사 공동체에 새로운 영적 갱생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 집회는 평양 교회로 하여금 자립과 자전의 정신을 더욱 강화시켜 한국인 전도자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십일조와 성미운동이 전개되었다. 평양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이전보다 더욱더 활력이 넘쳐났다. 평양의 경우처럼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처음에는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이 부흥운동에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회개하고 부흥운동에 참여하였다. 부흥운동의 과정이나 신앙 양태로 보아 초기엔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부흥운동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지역 교회간, 두 교파 교회간 신앙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7년 이후의 부흥운동의 다소 열기가 식어가자 선교사들이 이것을 염려하여 1909년 백만 명 구령운동(A Million Souls for Christ Movement)을 계획하였으나 기대하였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3-2. 회개 운동과 기독교 윤리의식의 형성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은 불신자를 위한 전도집회의 성격보다 교회 내의 신자들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회중들 앞에서 신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특징을 지닌다. 하다가 고백한 대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함으로써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 수 없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권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신자들은 부끄러운 죄를 드러낼 만큼 용기 있고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 거듭남을 체험하고 회개에 뒤따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기독교 윤리의식이 형성되었다. 신자들이 한국문화 속에서 죄 의식 없이 답습하던 옛 습관에 대한 기독교적 도덕과 윤리 기준에 비추어 새롭게 죄로 인식하고 윤리적인 결단을 하게 되었다. 당시 부흥운동 기간 중 자백한 죄에는 살인, 간음, 절도, 횡령, 거짓말, 질투 등과 같은 인류 보편적인 죄들이 많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죄 의식 없이 행해지던 봉건 시대 습관적인 행위들이 새롭게 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축첩과 조혼, 노비제도,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이다. 이같이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한국 교인들은 종래의 전통 종교를 기반으로 한 윤리 체계와는 구별되는 기독교적 윤리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윤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자리잡은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영향을 끼쳐 근대화로 표현되는 사회 개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평양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별다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중 한 가지는 여기에 모인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의 죄를 공중 앞에서 숨김없이 털어놓았다는 사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감동에 따른 통성 기도였다. 중요한 사실은 부흥회의 기도는 회개를 동반하는 기도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를 갈구하는 간절한 신앙의 염원이었다.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이 단순히 자신들의 감정 표출이나 감정적 격정에서 나온 일종의 탄식이 아닌 자신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움과 감사가 떠나지 않았으며 한 선교사의 고백대로 그곳에는 종종 감흥(the emotional)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감정(the sensational)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었고, 모인 개개인이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였다.

3-3. 부흥운동과 교회성장 운동

부흥운동의 결과로 동서양의 신앙적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서양 선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선교사들도 한국인들의 순수하고 깊이 있는 경건생활과 금욕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감동을 받았는데, 이것이 소위 동, 서양의 화해로 연결되었다. 선교 초기부터 선교사들과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의 원인은 일부 선교사들이 지니고 있던 문화적 식민주의(cultural colonialism) 의식으로서 이것은 문화적 자존심이 강했던 일세대 한국 기독교인들과 마찰을 빚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고 부흥운동은 그 틈새를 상당 부분 붙여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은 부흥운동을 통하여 교회 일치와 초교파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부흥사는 교파를 초월하여 부흥집회를 인도했고 연합기도회와 연합 사경회 형태로 부흥운동이 확산되었으며 동시에 부흥운동이 전개되는 시기에 교인들의 적극적인 전도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교회가 선교사들의 지원에 의존하는 미자립 상태에서 자립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특별히 성미 운동은 부인들이 각 가정에서 행하는 토착적 민간신앙의 행위가 헌신적인 기독교적 신앙 행위로 재해석되어 정착하게 되었다. 한편, 부흥운동으로 인해 교회가 성장하게 됨에 따라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에서는 교회의 조직을 자치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장로교와 감리교를 초월한 성령의 역사는 평양에서 모인 일련의 사경회와 지도자들을 위한 모임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서 마치 천하각국에서 모인 이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역동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능력을 입은 이들을 통해 각자의 고향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심지어는 부흥운동 기간 동안 회심하지 못한 목회자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앞에 변화가 된 경우가 많았으며 평양의 놀라운 영적 각성은 인간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켜 주었고, 그들의 가치관을 세상적인 데에서

더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었으며, 따라서 교회가 과거보다 더 복음 전도에 진력하기 시작하였다.

부흥운동이 교회의 성장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느냐 아니냐는 논란이 한국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 부흥운동이 한국에 뚜렷한 성장을 가져다 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1903년부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던 것도 1903년의 원산 부흥운동, 1907년의 평양 대 부흥운동, 1909년 이후의 백만인 구령운동 등 이와 같은 일련의 부흥운동과 맞물려 이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부흥운동이 교회의 교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역의 확장과 다양성을 불가피하게 초래해 단순히 교회 성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성장을 유도한 것도 사실이다.

3-4. 부흥운동과 정치적 각성운동

나라가 민족적 위기에 처할 때 영적 대각성운동이 발흥하였던 역사를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영국 교회가 청교도들의 전통을 떠나 영적 생명력을 상실해 산업혁명으로 인한 세속화의 도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웨슬리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미국에서도 독립전쟁 후 있었던 제1차 대각성운동이 쇠퇴하고 유럽의 계몽주의의 물결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칠 때 무디의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종교적 각성운동이 발흥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위기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였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 이 민족을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하신 것이다. 부흥운동 시기의 1904년부터 1905년까지는 한국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이래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을사보호조약으로 한 세기에 걸친 일본의 욕심이 채워졌으며 이 기간은 클락(Clark)의 말대로 한국민들에게 민족적인 시련기였다. 을사보호조약으로 주권이 상실되자 충성스러운 구 한국의 정부 관리들과 유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한국인이자면 이 민족적 수치와 슬픔 앞에 통탄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하와이로 떠났다. 왓슨(A. W. Wasson)이 지적한 것처럼 세계는 한국을 이 시대의 가장 큰 정치적인 실험 무대 가운데 한 지역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국가의 무능력(national incompetence)과 공직자들의 부패의 노출은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에게 혐오감이나 불행한 백성의 운명에 대한 동정심을 야기시켰고 비극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한국의 불행에 대하여 선교사들은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불행이 일본의 패권주의에 있다고 인식한 선교사들은 일본의 한국 식민화 작업에 비판적이었다. 일본의 패권주의에 대해 험버트(Homer B. Hurbert)를 비롯한 일부 미국 선교사들과 미국의 언론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간행하는 공립신문은, 미국이 일본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한국의 독립을 멸시하고 한국 주재 주미 공사까지 소환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것은 결코 의리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이것은 일본의 마음을 사는 듯하나 미국을 멸시하는 자 일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처사라며 신랄하게 미국의 한국통치 인준을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지배를 비판하는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판의 여론보다 오히려 찬성하는 여론들이 더 많았다. 특히 미국의 모든 여론들은 한국은 사라졌다고 외쳤다. 미국인과 미국 언론들은 을사보호조약체결 후 한국을 쇠미해 가는 나라로 이해하고 한국이 역지로나 다른 나라의 권위에 순복할 때 비로소 그곳에 희망이 있다고 여론을 호도 했으며 아예 노골적으로 일본 지배를 예찬하는 이들도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은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가 선교사역에 미칠 영향 때문에 새로운 선교적 과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정치적인 위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이며, 그래서 교회가 그 답을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 문제의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확신하였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부흥운동이야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죄와 외세의 억압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장로교, 감리교를 초월해 한국에 들어온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자의식이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인들도 정치적인 일에 가담하여 소요를 일으키고 무기를 들고 다니며 살육을 하던 때에 선교사들과 부흥회를 인도하던 지도자들은 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킬 것을 권하고 교회가 정치에 가담하는 일을 막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교회가 민족운동에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민족 지도자들이 회회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위임한 것이 다라는 성서적 교훈을 따르게 하여 사회적 소요를 막고 기독교적인 가치에 맞는 신앙생활을 한 반면에 정치 지도자들의 부조리를 묵인하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동조하는 한계가 있다.

3-5. 부흥운동과 한계

부흥운동이 개신교 초기 한국 사회와 민중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부흥운동으로 인하여 현실 도피적이고 내세 지향적 신앙을 가지게 된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당시 정치와 사회적인 상황이 불안하고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의 정치참여를 반대하고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삶이라고 가르침으로써 현실 문제에 무관심하였던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자연히 개인 구원에 대한 관심이 사회 구원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선교사들은 교회 내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 선동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경계 조치함으로써 결국 정치와 회회를 분리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07년을 전후한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을 종교적 심성에서 발로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한국의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부흥운동을 통해 비정치화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치적인 압박과

민족적인 독립의 소망이 종교적 소망으로 대치되어 영적이고 피안적인 것을 지향하면서 부흥운동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고 따라서 부흥운동을 종교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당시 일제의 압박 속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도피적이고 피안적인 경향이 부흥운동을 촉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치적인 동기가 부흥운동의 일차적인 요인이라거나 혹은 부흥운동의 직접적인 동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정치적인 위기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민족의 독립의 소망이 요원하게 되자 종교적인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중요한 사실은 부흥의 요인을 정치적인 요인에서 찾는 것보다는 좀 더 신앙적인 원리, 복음을 전해 받은 한국인들이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한국인 스스로의 구령의 열정에서 찾아야 했다고 보는 시각도 가능하다.

정치적인 이유로 부흥운동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당시의 부흥운동의 발흥과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적도 있고, 또한 그것을 위해 일부 선교사들이 한때 의도적으로 노력한 것도 사실이지만 부흥운동을 전후하여 절대 다수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교회가 정치 도구화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따라서 정치적인 관심이 종교적인 관심으로 대치되면서 부흥운동이 촉발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엽적인 것을 들어 부흥운동의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대주의의 의식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는데, 서구의 기독교 문화를 우월하게 생각하여 무조건 모방하고 무분별하게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한국의 토속적인 문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고 기독교 문화와 토착 문화의 연결을 거부하며 서구 문화 종속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기독교는 한국 전통 문화와 단절되며 한국 문화가 아닌 독자적인 기독교 문화의 작업

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불연속성의 기독교 문화 수립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성서연구와 종교체험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성서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은 제사 의식이나 한국 전래적인 의식에 대한 급격한 배척과 토착 종교 문화를 타파하는 행위로 연결되어 한국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제사의식을 우상숭배로 해석한 초기 교인들은 사당과 제청을 철폐하고 제사의식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역으로 마을과 집안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이었고 그 근거는 성경, 특히 구약의 십계명에 있었다. 십계명이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 행동 원리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토착 종교로부터의 단절은 배타적 기독교 중심주의의 필연적 결과였으며 미신, 구습으로 표현되는 토착 종교와 문화의 사회적 역기능을 쇠신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토착 종교가 문화와의 대화마저도 단절함으로써 기독교가 토착 문화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방적이고 이질적인 문화로 자신의 영역을 제한하였다는 점이 반성의 측면이다. 따라서 기독교가 점점 지역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한편, 교회 내에서는 교파 주의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문명 발달을 근거로 한 서구 모방주의가 하나의 원인으로서는 같은 서구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문명 발달의 수준으로 보아 개신교 국가와 천주교 국가를 비교하기 시작한 것이다.

4. 근대화와 부흥회

초기 부흥운동의 특징은 개인의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과 함께 공개적인 자백과 회개가 이어졌는데, 한국인들이 비교적 자기 표현에 익숙하지 못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한 임재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형태가 아닌 교회 회중 가운데 부끄러운 죄를 드러냈다

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쳤던 자는 즉각적으로 돌려주고 변상하였으며 첩을 둔 자는 첩을 돌려보내는 등 윤리적인 결단 행위로 이어졌다. 회개로 인한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도 가져왔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저주와 살인 계획에 대한 회개와 함께 기독교의 덕목인 원수 사랑의 실천을 위해 일본인들을 용서하겠다는 다짐들이 있었기에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도 생겨났다. 그리고 공개적인 회개 형태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 집단적인 회개를 일으켰고 이것은 폭발적인 교회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아울러 한국의 부흥운동이 당시 사회의 도덕 수준을 높이게 하였고 근면성과, 죄의식의 강화, 여권의 신장, 그리고 서양 의학의 도입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 개혁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독교를 통해 이 나라에 들어 온 새롭고 활발한 도덕 및 영적인 역동성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주었으며 그러한 영향은 만주와 시베리아에 있는 한인들은 물론 그곳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 근대화 과정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성장을 종교학자 데이비드 마틴(David Martin)의 이론을 통하여 잠깐 살펴보자. 데이비드 마틴(David Martin)은 종교 세속화 이론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학자이다. 특히 그의 1978년 작품 『세속화에 관한 일반 이론』(*A General Theory of Secularization*)은 종교 세속화 이론의 교과서라 할 수 있을 만큼 이론과 분석에 뛰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의 『성령의 불길』(*Tongues of Fire*)이라는 책에는 그의 세속화 이론이 단지 종교의 의미가 기층 사회 속에서 점점 성원들에게 상실된다는 차원이 아닌 라틴 아메리카에서 왜 성령의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는가에 대한 분석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는 성령의 불길에서 남한의 복음주의에 근거한 성령 운동과 남아프리카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왜 한국 사회에 이와 같은 성령운동이 촉

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마틴은 한국의 교회성장 요인 중에서 기독교 개신교와 경제적인 정서(ethos), 그리고 정치와의 관계가 그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의 인도네시아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주로 민족적 단결이라는 요소와 이미 있었던 종교 사이의 관계, 또는 기층 종교 유형,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보았다.

마틴은 한국 사회가 대규모의 다원주의를 경험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강조한다. 그가 보는 다원적인 요소란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어서 일본에 의한 침탈과 자국 내 정치적인 분열, 그리고 미국의 문화적인 영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자신을 해방하고자 하는 민중의 자아 의식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것을 열망하는 삶의 방식(modus vivendi)이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구조는 더 이상 국민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일본제국주의의 문화말살정책에 반감을 품게 된 민중은 자연스럽게 미국식 대안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바로 거기에는 근대화라는 통로가 있었으며, 그러한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였다고 마틴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에서 왜 그렇게 급속도로 개신교가 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마틴은 정치 문화 종교적인 요인들을 통하여 그 답을 찾고 있다. 우선 정치적인 요인으로서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전쟁과 내정간섭에 시달려 온 점들을 들고 있다. 한국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의 흔적 속에서 일본의 탄압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은 분단은 한국 사람들에게 일종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어서 새롭고 메시아적인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다고 그는 본다.

여기에서 필자가 한국의 근대주의의 특성과 도덕성의 문제를 놓고

주목하는 것은 마틴도 강조하는 바이지만 한국에 찾아온 미국식 개신교는 해방이라는 정신적인 정서를 제공하여 주었지만 성격상 비정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것이다. 미국 선교사들의 신학적 중심사상은 보상과 종말론적인 것이었으며 역시 라틴 아메리카에 들어간 미국적 개신교의 성격과 흡사한 것이었다. 이러한 비정치적인 성격은 한국에 들어온 미국인들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일본의 군주제와 대결을 피할 수 있었고 이것은 한국 교회가 계속 살아 남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른 결과는 한국인들에게 일본이 계속 적으로 비쳐진 반면에 미국인들은 친구로 여겨질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신생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한국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성격을 형성하면서 기독교는 점차 자연스럽게 대중화 되어갔다.

마틴은 위와 같은 당시 일본과 관계된 정치적인 요소 말고도 한국 개신교의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는 한국 내 이씨 조선의 정치 도덕적인 부패의 문제와 유교에 대한 반발로 국민들이 차선적인 대안으로 기독교를 선택한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이 이런 면에서 가장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였고 이와 같은 점은 마치 일본의 경우 명치유신에서 축출된 사무라이들이 기독교를 수용한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마틴은 에버렛 하겐(Everett Hagen)이 쓴 용어를 빌려 이와 같은 종교로의 귀의를 영국산업혁명시기에는 반체제 문학인들로, 일본의 경우는 반 체제인사들로 구별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당시 절망과 사회에서 배척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를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마틴은 한국에 들어온 미국의 개신교가 한국의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시 한국 사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던 유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하여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생존은 마틴의 분석에 의하면 후에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 배제

된 성장이라는 측면만 강조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마틴의 분석은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학자들의 의견과 상당히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5. 나가는 말: 해방적 영성으로서의 부흥회

조지 피터스(George Peters)는 『교회성장 신학』(*A Theology of Church Growth*)에서 성장을 개 교회 중심이 아닌 선교신학적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은 교회의 최종적인 근거요 근원자이시며 지고하신 창조주요 행위자로서 모든 궁극적 관점과 목표라고 주장한다. 피터스가 성장신학의 출발점을 성서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이유는 성서는 인간 자체에 흥미를 갖거나 교회 중심적인 어떤 인간적 사상에 대하여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터스는 경고하기를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이 자칫 형식적으로는 구원 중심적인 듯 하나 위협스럽게 조직적 교회나 인간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결국 인본주의나 맹목적인 심취, 혹은 우상 숭배의 최종 형태인 무신론으로 빠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조지 피터스는 성령이 사도행전의 중심이며 성령은 교회성장의 궁극적인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성장 원동력으로 말씀과 봉사, 그리고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피터스는 교회 성장의 성서적 원리로서 성령이 교회 성장의 궁극적인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교회 성장이 인간의 계획과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임을 주장하며 여기에서 교회는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셨다고 한다면, 복음서에서의 하나님은 육신의 몸 안에 거하시고, 지금은 교회에 거하신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필자는 한국 개신교 초대 교회의 역사에서 부흥회는 성령의 운동을

통하여 당시 인간의 경험과 교회, 그리고 역사라는 정황에서 분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부흥회는 인간이 역사 속에서 끊임 없이 재구성하여야 할 영적 각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시 부흥회는 한국인들에게 도덕적 사안을 제시하였다기보다는 역동적이고 책임을 수반하는 윤리적인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한국 근대사의 왜곡된 역사관을 재해석하거나 정화할 수 있는 기독교적 영성의 정체성 혼돈에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그 영성의 역사적 정황을 끊임없이 재해석하여 궁극적 의미를 삶과 연관하여 전하여 줄 교회 자체도 세속화와 물질화 풍조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의 임무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가 성서의 이야기를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는 한 한국 교회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반성하고 자신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부흥회와 연관하여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시급하다. 즉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묻고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의 방향이 꺾전만 올리는 도덕성에 대한 훈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향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독교인의 책임을 개인적 경건주의의 영성 차원이 아닌 이웃과의 책임적인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기록성(sanctity)에 있음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영성은 관념론으로 포장된 이데올로기에 헌신하는 사회적 입장을 포기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 세상 속에서 진리와 보편적인 사랑을 획득하고 인간의 유한성을 변증법적으로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교회는 먼저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사회 정화 역할을 감당하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진정한 섬김으로 사회 속에서 기록성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독교인다운 형태가 될 것이다.

스탠리 하우어워즈(Stanley Hauerwas)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성서 속의 공동체를 현재에 다시 기억하여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성서를 도덕적으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성서 속의 이야기가 공동체 속에서 경험이 될 때 그 이야기는 성서가 쓰여진 당시의 사회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재현하게 되며 당시에 성서가 권위적인 말씀으로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는 지금 사회 구성체인 교회 성원들과 성서 내의 인간 구원, 해방 사건이 반드시 연관이 되어야 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성서는 계시된 윤리(revealed morality)가 아니라 계시된 실재(revealed reality)이다. 즉 성서의 권위를 해석하려면 성서가 어떻게 교회의 삶(the life of the church)과 관련이 되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 초대교회 공동체의 권위가 전통을 통하여 인정이 되고 그 공동체가 더 나은 세계로 발전하여 갈 때 초대교회가 보여 준 영적인 각성은 우리에게 바른 기독교 전통과 공동체의 권위를 알리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성서가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서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게 충분히 신뢰될 만한 내용들을 제공하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시대를 넘어 지속적인 대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교회의 증언에 근거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 교회 부흥회가 바른 기독교 전통 속에서 진리를 통한 영적 재각성으로 늘 거듭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강조하여 본다.

첫째, 라인홀드 니버가 강조하듯이 진정한 믿음은 이성을 부양해야 하며 이성도 또한 믿음을 부양해야 한다고 본다. 부흥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영원한 절대에서 진리를 찾거나 초자연 영역에서 찾으려는 종교 절대주의의 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 시대의 도덕적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 초월적 가능성을 찾는 탐구하는 교회와 신학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한국 초대교회 부흥회의 특징은 수직적이며 존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근원을 강조하였지만 동시에 당시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여 나갔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흥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 성장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하면서 동시에 한국 전통과 역사에 대한 재발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근대화 과정 중에 나타난 왜곡된 우리들의 가치관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이 비판을 통한 역사 발전의 해석이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서 가능하며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을 강조하고 싶다.

셋째, 바른 기독교 영성에 대한 재인식이다. 기독교의 영성은 교회 성장주의를 위한 영성도 아니고, 개인의 초월을 향한 영성도 아니다. 공동체의 살아있는 경험과 그 경험이 책임 있는 윤리로 계속 이어지는 초대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영성은 하나님과 개인, 나아가 이웃을 연결하여 주어 통전적인 시각에서 보는 해방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

넷째, 책임적인 영성은 구체적인 목적 가치성을 가져야 한다. 즉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이 지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은 바로 이웃을 향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이다. 일당 국가 지상주의나 자본주의의 확장, 혹은 종교왕국이나 유평파야적인 의미에서의 세계화가 아닌 이웃을 향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이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세계화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자신을 맡기고 교회를 통하여 훈련받으며 나아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각도에서 그 뜻이 분명하여지는 것이다.